

전주시, 중기 맞춤형 수출지원 집중

20일~29일 6개 업체 '전주시 미국 무역사절단' 파견 21~23일 '비욘드 뷰티 아세안 방콕' 전주시관 운영

독일형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전주시는 올해 10배 늘어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예산을 활용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미국에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하고,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관료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KOTIRA지원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8박 10일 동안 고려자연식품(주) 등 6개 업체를 '2017 전주시 미국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뉴욕과 마이애미, 달라스 미국 내 3개 무역관을 방문해 무역관별 해외바이어 상담·발굴 및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해외시장 조사비용과 바이어 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는 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 임팩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7 비욘드 뷰티 아세안 방콕 박

람회'에 전주시관을 설치·운영한다. 10개국 4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 박람회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연인원 2만명이 찾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미용전시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휴먼드림 등 전주시 6개 업체가 참가해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파악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에 박람회 참가비용 전액과 통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가 전문바이어의 참관비중이 높아 계약 성사율이 높은 만큼, 기업의 판로개척은 물론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강소항토키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근속수당 인상하라” 18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같은 노동을 해도 벌어지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이번에는 교섭과 투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사절단 파견 및 미용 박람회 참가는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이라며 "현지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주시 지역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아파트 투신 여중생 “학폭 시달렸다”

학폭위, 가해학생 7명 징계

학교폭력위원회는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투신자살한 여중생 A양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18일 A양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학폭위 심의결과 강제전학 1명, 출석정지 4명, 교내봉사 10시간 2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지난 15일 해당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가해자들과 피해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술을 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결과를 관련 학생 부모들에게 보낼 예정이다”며 “잘차 마무리 되는대로 징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경 인근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이상민 기자

부부 중상 입힌 맹견 주인에 구속영장

고창에서 산책 중이던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맹견의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을 조사하려 했으나 강씨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방치한 점, 부부가 큰 피해를 입은 점을 들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경 고창군 고인동공원 내에서 산책 중이

던 40대 부부에게 공격한 맹견의 주인으로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0대 부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는 다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물리고 큰 상처를 입어 수술까지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강씨는 “잠깐 신경을 판 사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시민과 통하는 전주 앱 공모전’

공공데이터 스마트 앱 개발... 10월 16일~11월 20일 접수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에 나선다. 시는 18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전주시가 개발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앱 등 공공서비스 활용 사례를 모집하는 ‘전주시민과 통하는 전주 앱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앱 개발이며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 개방과 공유,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접수는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총 7팀을 선발하게 된다. 선정된 팀에는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70만원, 장려상 4명 각 4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반드시 전주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jonju.go.kr)을 통해 개방된 앱을 개발해야 하며, 이미 출시됐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앱, 저작권 침해하는 표절작, 대리작의 경우 앱 공모심사에서 제외된다. 양영수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그 동안 개발했던 교통, 음식점, 병원, 약국 등의 데이터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소프트웨어 개발 붐 조정을 물론 시가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개방 공공데이터는 전주시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o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

전주시, 오는 27~28일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에서

전주시는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구. 스레기매립장)에서 오는 27일과 28일까지 2일간 어린이와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하는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는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를 테마로 방문객들이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구절초, 파꽃 등 가을꽃과 허수아비가 어우러진 꽃누리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진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와 곤충 이야기를 담은 2가지 교육 프로그램 △코스모스 목걸이 만들기 △붕송아들물고기 △트랙터 타고 꽃구경하기 등의 9가지 자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나뭇가지에 나뭇잎과 열매를 붙여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만드는 ‘우리가 꾸미

는 가을 풍경’, 꽃밭 버스킹 등 5가지의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전주화해연합회 10명과 정읍국유림관리소 9명, 자반마을 5명, 전북 숲해설가 전문가 협회 10명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층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행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 참가 신청은 전주시와 인근 시·군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행사일 이전까지 이메일(parkyc76@korea.kr) 또는 팩스(063-281-2606)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 속에서 지친 심신을 자연 속에서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주시의 주요 문화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노인 보이스피싱 사기 외국인 3명 구속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친 외국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18일 혐의로 중국인 A(26)씨 등 2명과 말레이시아인 B(2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일과 12일 익산과 전주에서 4,680만원을 훔쳤다. 또한 15일 대전에서도 7,500만원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돈

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해야 한다고 속인 후 수사원으로 위장해 노인을 집밖으로 유인한 뒤 다른 일당이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신고로 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인천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B씨 등 2명도 차례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김제 저온창고 화재... 5000만원 피해

18일 오전 6시 24분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농촌체험장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해 저온창고가 전소되고 창고 안에 있던 농작물과 착곡기 등이 불에 타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이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목격자와 참고 주민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